

‘기승호 활용법’ LG 운명 바꾼다

25일 군제대…후반기 반전카드
적극적 포스트업·외곽슛 장기
8위 LG, 6강 PO 경쟁에 큰힘

올 시즌 남자프로농구에선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위 SK(27승7패)부터 4위 KGC(18승16패)까지는 5할 승률을 넘어서면서 플레이오프 안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 5~6위 자리를 놓고 KT, 오리온스, 동부, LG, 삼성이 경쟁을 펼치는 구도다. 이런 가운데 LG는 25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기승호(29)의 복귀를 계기로 후반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2008~2009시즌 데뷔한 기승호는 화려한 기술을 갖춘 선수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근성 있는 플레이로 강을준 전 감독의 총애 속에 LG의 간판선수로 성장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 복무 기간 그는 공격력을 배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병현, 윤호영과 더불어 상무의 주득점원으로 활약한 그는 지난해 2월 23일 전자랜드 2군과의 원터리그 경기에서 42점을 넣었다. 원터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득점 기록이다. 비록 2군 선수들이 뛰는 원터리그 기록이었지만, 적극적 포스트업과 과감한 외곽슛은 공격에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말년 휴가 동안 기승호는 LG에 합류해 새로운 팀 동료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김진 LG 감독은 22일 동부와의 창원 홈경기기를 앞두고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더라. 팀 훈련을 함께 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



기승호

만, 플레이가 입대 전에 비해 한층 성숙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도 농구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며 기승호를 칭찬했다.

김 감독은 3~4번 포지션(스몰포워드~파워포워드) 소화가 가능한 기승호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김 감독은 “주득점원인 (김)영환이의 백업은 물론이고 함께 뛰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다. 영환이가 체력부담이 컸는데, 승호의 합류로 힘을 더 받게 될 것 같다”고 기승호의 활용법을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슈팅이 많이 좋아졌지만, 팰런스 면에선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인다. 아무래도 팀 조직력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느냐가 변수다. 어쨌든 플레이오프 경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창원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 @stopwook15



동부 김주승(오른쪽)이 22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원정경기 1쿼터에서 로드 벤슨(가운데)의 골밑슛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휴식 끝! 체력충전 완료!

여자농구 6~7R 10경기 총력전 예고



잠시 휴가를 떠났던 여자 프로농구(WKBL)가 일선에 복귀할 채비를 하고 있다. 24일 춘천에서 열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6라운드 첫 경기를 시작으로 남은 두 라운드의 막판 스퍼트를 시작

한다.

WKBL은 7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어진 삼성생명-KDB생명전을 끝으로 무려 16일에 걸친 긴 휴식을 취했다. 리그 출범 이후 가장 긴 브레이크였다. 경북 경산에서 여자농구 사상 첫 컵대회인 ‘필린지컵’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프로팀은 대부분 2군급 선수들이 출전한 까닭에 주전 선수들은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잠시 물러나 쉼표 같은 여유를 즐겼다.

그렇다면 2주 넘는 긴 쉼표가 이들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선수들은 대부분 “체력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5라운드까지 쉴 틈 없이 코트를 누볐던 선수들에게는 더 그렇다. KDB생명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채진과 신정자는 5라운드까지 각각 977분과 875분을 뛰었다. 경기당 평균 39분05초와 38분04초를 소화해 이 부문 1·2위에 나란히 올라 있다. 썰매에서 선두로 급부상한 우리은행의 박혜진(945분)과 임영희(943분)에게도 하중이 많이 걸렸고, KB국민은행

강아정(937분)과 신한은행 최윤아(918분) 역시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코트에서 보냈다. 당연히 휴식이 절실했다.

5위 하나외환의 주포 김정은은 “경기감각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우리(WKB L) 스케줄 자체가 여자선수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된다.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는데, 브레이크 기간을 통해 새로 정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남은 10경기에서 다들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KBL 여자 프로배구 <22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IBK기업은행	17	15	2	44	1473	1265	3승
2	GS칼텍스	18	12	6	34	1447	1420	1승
3	도로공사	17	10	7	28	1443	1384	1승
4	현대건설	17	8	9	24	1369	1352	3패
5	흥국생명	16	5	11	18	1268	1345	2승
6	인삼공사	17	1	16	5	1236	1470	14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윌트니	흥국생명	481	①	양효진	현대건설	0.96
②	니콜	도로공사	473	②	김희진	IBK기업은행	0.63
③	알렉시아	IBK기업은행	454	③	알렉시아	IBK기업은행	0.63
④	아나	현대건설	329	④	정대영	GS칼텍스	0.57
⑤	베디	GS칼텍스	301	⑤	윌트니	흥국생명	0.45

•경기결과

현대건설 0 - 3 GS칼텍스

WKBL 여자프로농구 <22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25	20	5	0.800	-	4승
2	신한은행	25	17	8	0.680	3	1패
3	삼성생명	25	12	13	0.480	8	3승
4	KB스타즈	25	10	15	0.400	10	4패
5	하나은행	25	9	16	0.360	11	2승
6	KDB생명	25	7	18	0.280	13	5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변연하	KB스타즈	18.4	① 최윤아	신한은행	5.8	① 신정자	KDB생명	10.8
② 김정은	하나은행	16.5	② 변연하	KB스타즈	5.0	② 허은자	하나은행	8.0
③ 임영희	우리은행	16.5	③ 신정자	KDB생명	4.9	③ 정선화	KB스타즈	7.1
④ 신정자	KDB생명	14.3	④ 이미진	삼성생명	4.9	④ 최윤아	신한은행	6.7
⑤ 한채진	KDB생명	14.2	⑤ 박혜진	우리은행	4.0	⑤ 박혜진	우리은행	6.4

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NBA <22일>

•팀순위

순위 대서양지구				순위 중부지구				순위 남동지구			
승	패	승	패	승	패	승	패	승	패	승	패
1	뉴욕	25	14	1	인디애나	26	16	1	마이애미	26	12
2	브루클린	25	16	2	사카고	24	16	2	매들렌타	23	18
3	보스턴	20	20	3	밀워키	21	18	3	올랜도	14	26
4	필라델피아	17	24	4	디트로이트	15	25	4	샬럿	10	31
5	토론토	15	26	5	클리블랜드	10	32	5	워싱턴	9	30

•경기결과

애틀랜타 104-96 미네소타	뉴올리언스 114-105 세크라멘토	시카고 95-83 LAL
골든스테이트 106-99 LAC	브루클린 88-85 뉴욕	샌안토니오 90-85 필라델피아
워싱턴 98-95 포틀랜드	인디애나 82-81 멤피스	휴스턴 100-94 싼트

NHL <22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서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OT	순위	북동지구	승	패	OT	순위	남동지구	승	패	OT	P		
1	피츠버그	2	0	0	4	1	오라와	2	0	0	4	1	필라베이	1	1	0	2
2	뉴저지	1	0	0	0	2	버펄로	2	0	0	4	2	블루리더	1	1	0	2
3	뉴욕	1	1	0	2	3	보스턴	2	0	0	4	3	워싱턴	0	1	1	1
4	필라델피아	0	2	0	0	4	토론토	1	1	0	2	4	워싱턴	0	1	0	0
5	뉴욕R	0	2	0	0	5	몬트리올	0	1	0	0	5	캐롤라이나	0	1	0	0

•경기결과

1 시카고 2 0 0 4	1 미네소타 2 0 0 4	1 애틀랜타 2 0 0 4
2 세인트루이스 2 0 0 4	2 에드먼턴 1 0 0 2	2 새디에미 1 0 0 2
3 콜럼비아 1 0 1 3	3 밴쿠버 0 1 1 1	3 앨버타 1 1 0 2
4 미네소타 0 0 2 2	4 콜로라도 0 1 0 0	4 LA 0 1 0 0
5 디트로이트 1 1 0 2	5 칼거리 0 2 0 0	5 피닉스 0 2 0 0

•경기결과

보스턴 2-1 워니펙	뉴욕 4-3 탬파베이	산루이스 4-3 내슈빌
버펄로 2-1 토론토	오타와 4-0 플로리다	디트로이트 4-3 콜럼버스
애너하임 5-4 캘거리		

경기종합 <22일>

●2013 WKBL 총재배 춘계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경북 경산)
●고등부 A조=춘천여고(2승) 66-56 청주여고(2패), 선일여고(1승) 76-55 마산여고(2패) ●고등부 B조=인성여고(2승) 62-43 숙명여고(1승1패) ●고등부 C조=온양여고(2승) 60-46 효성여고(2패) ●고등부 D조=수원여고(1승) 76-47 기전여고(1패) ●중등부 A조=연암중(2승) 51-34 마산여중(1패), 수피아여중(1승1패) 54-51 청주여중(2패) ●중등부 B조=인성여중(1승1패) 54-37 부일여중(2패) ●중등부 C조=기전중(1승1패) 47-38 효성중(1패), 청송중(2승) 69-36 제주중앙여중(2패) ●중등부 D조=송의여중(1승) 47-28 상주여중(2패), 삼천포여중(2승) 70-31 봉의여중(1승1패)

●테니스 ●2013 호주오픈 주니어대회(호주 멜버른파크)
●남자 복식 16강=정현, 김택연(한국) 2-0 한손(스웨덴), 다카시(일본), 김영석, 홍성진(한국) 2-1 크위아트코프스(미국), 이메르(스웨덴)

●핸드볼 ●제 23회 세계 선수권대회(스페인)
●21위-24위 순위결정전=한국 36-14 호주

●스키 ●제 67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알펜시아)
●30km 프리 남자부 결승전=① 김정민(경기도체육회), ② 황준호(단국대), ③ 김대성(강원스키협회) ●15km 프리 여자부 결승전=① 이채원(경기도체육회), ② 주혜리(평창군청), ③ 남슬기(한체대)

●빙상 ●2013 종합 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태릉)
●1000m 여자 실업부 결승전=① 이보라(동두천시청), ② 이승진(강원도청) ●10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김보름(한체대), ② 박도영(한체대), ③ 남지은(세화여고), ④ 정미(의정부여고) ●1500m 남자 실업부 결승전=① 김대순(동두천시청) ●15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① 주형준(한체대), ② 김철민(한체대), ③ 이진영(한체대) ●15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서정수(행신고), ② 김영진(정원고), ③ 소한재(광문고) ●1500m 여자 실업부 결승전=① 이보라(동두천시청), ② 이승진(강원도청), ③ 이주연(동두천시청) ●15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김보름(한체대), ② 박도영(한체대), ③ 임정수(한체대) ●15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허윤희(배화여고), ② 남지은(세화여고), ③ 박초원(노원고)

대한농구협회장 출마 한선교 KBL총재를 보는 시선

“KBL 인기 부활도 못했는데…”

전자랜드 문제 등 과제 산적…우려의 목소리 커



대한농구협회는 22일 “2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제32대 대한농구협회장 선거에 이종걸(56) 현 회장, 방열(72) 건통대 총장, 한선교(54·사진) 한국농구연맹(KBL) 총재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프로농구 관계자들은 “프로·아마의 갈등을 없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출마한 한

총재를 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순히 KBL과 대한농구협회의 수장직을 겸임한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는 아니다. “프로농구 인기가 추락한 이 시점에서 산적한 내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다.

한 총재는 KBL 회원사가 아닌 KB국민카드를 스폰서로 유지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 그 간에는 KBL 회원사들이 스폰서를 맡으면서 판과 판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과제로 삼았던 농구 인기의 부활에 대해서 실패리조차 잡지 못했다. 당면한 현안에서도 돌파력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전자랜드 문제가 있다.

현재 전자랜드 선수단은 모기업에선 운영비만 받고, 연봉은 KBL에서 지원받는다. KBL은 여전히 전자랜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가 공중분해된 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대응과는 대비된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인 최경환 WKBL 총재는 2012년 8월 취임과 동시에 ‘하나금융그룹의 신세계 농구단 인수’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한 총재는 21일 이종걸 현 회장의 후보 등록 직후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총재의 측근은 “만약 이종걸 회장이 선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한 총재 역시 출마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이 회장이 후보를 사퇴하면, 한 총재가 방열 총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것이라는 말들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견제하기 출마했다면, 굳이 한 총재가 선거에 나와 이 회장을 대적할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었다. 방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될 일이다. 출마 과정 자체가 자가담차이다. 이런 정치 논리로 농구계를 재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미국프로농구(NBA)가 세계적 인기 스포츠로 도약한 데는 1984년부터 커미셔너를 맡았던 데이비드 스타인의 역할이 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남자핸드볼대표팀, 호주 꺾고 세계선수권 첫승

남자핸드볼대표팀이 22일(한국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제23회 세계선수권대회 21~24위 순위결정전에서 호주를 36-14로 꺾고 이번 대회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23일 몬테네그로와 2·22위 결정전에 나선다.

새크라멘토 킹스 ‘역사속으로’…새 연고팀 시애틀

미국프로농구(NBA) 새크라멘토 킹스가 2013~2014시즌부터 시애틀을 새 연고지로 삼게 됐다. 시애틀을 연고로 한 금융투자기관을 갖고 있는 크리스토퍼 한센은 23일(한국시간) 5억2500만달러(약 5582억원)를 내고 구단 주식의 65%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NBA 구단주 회의의 승인이 나면 한센은 다음 시즌 연고지를 시애틀로 옮길 계획이다.

편집 | 심승식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오늘의 프로농구

●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23일>

SK (잠실학생)	삼성	인삼공사 (안양실내)	오리온스
오후7시, KBSN스포츠	오후7시, SBS-ESPN		

오늘의 프로배구

●2012-2013 NH농협 V-리그 <남자부> <23일>

대한항공	인천도원실내	현대캐피탈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2012-2013 NH농협 V-리그 <여자부> <23일>

흥국생명	인천도원실내	도로공사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경기예고 <23일>

●농구 ●2012-2013 KBL 원터리그(KCC연승, 오후1시)
●챔피언결정전 2차전=KCC-상무
●2013 WKBL 총재배 춘계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경북 경산)
●고등부 A조=동주여고-마산여고(오전11시), 선일여고-춘천여고(오후12시20분) ●고등부 B조=송의여고-삼천포여고(오후1시40분)
●고등부 C조=대전여중-법성고(오후3시) ●고등부 D조=기전여고-분당정산고(오후4시20분), 수원여고-수피아여고(오후5시40분) ●중등부 A조=선일여중-연암중(오전11시10분), 마산여중-수피아여중(오후12시20분) ●중등부 B조=수원제일중-숙명여중(오후1시30분) ●중등부 C조=동주여중-기전중(오후2시40분), 효성중-정승중(오후3시50분) ●중등부 D조=홍농중-상주여중(오후5시), 송의여중-삼천포여중(오후6시10분)

●핸드볼 ●제 23회 세계 선수권대회(스페인)

●스키 ●제 67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알펜시아)

●빙상 ●2013 종합 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태릉, 오후2시)